

海外業界動向

세계은행·IMF 합동위, 해외직접투자 촉진키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합동개발 위원회는 최근 ① 해외직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 가이드 라인」의 책정 ② 책무전략의 강화 ③ 第2世銀(IDA)의 第10次 증자의 연내승인 등을 주축으로 하는 성명서를 선택하고 폐막하였다.

투자 Guide Line은 투자관련법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의 취급 기준을 책정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촉진이 목적이다. 사무국위원안을 기초로 정식 결정하여 멀지 않아 공표한다는 대에 합의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책무에 대해서는 채권국會議(파리 클럽)에 의한 最貧國用의 채무구제조치의 확대 등을 환영하고 있다. 계속하여 채무순연과 삭감 등을 검토해야 된다고 표명하였다.

IDA의 第10次 增資에서는 프레스를 世銀總裁가 130億, SOR(IMF의 특별 引出權) 이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제안하였다.

이 외, 환경에 대해서는 신규자금을 지구환경 설비 등을 통하여 공급한다는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P)의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미국상무부, 자유무역협정지역 확대 시사

美상무부는 6日, 자유무역협정을 Asia지역으로 확대 방침을 표명하였다. 빠르면 내년 봄부터 호주 등 5個國 지역과의 협정교섭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日本과의 협정교섭의 가능성도 있다. 아세안국가의 우루과이 라운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라빈 상무성차관보 대리(東南Asia 담당)에 의하면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시장개방, 투자제한의 철폐,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약속한 국가와 교섭을 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또한 그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第1후보는, 호주,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의 5個國지역으로 비교적 시장이 개방되고, 국제화되고 있다고 표명하였다.

日本에 대해서는 제외의 암시를 포함하면서 최대 장애는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현단계에서는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의 체결이 第1과제」라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의는 NAFTA 체결에 관한 美의회 의 일괄 승인 수속의 기한이 끝나는 내년 5月 이후가 될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미국 FCC, HDTV 도입계획안 일부 수정

美聯邦通信委員會(FCC)는 최근, HDTV 도입계획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에서는 방송사업의 신청기간의 1년 연장, Thermal 캐스트 방식의 24시간 枠 설정 등이 내장되어 있다.

수정안에 의하면, HDTV 방송사업의 신청기간을 표준전송방식을 결정하는 '93년부터 3年間으로 하며, 그 後 3年間의 설비건설 기간을 거쳐, '99년에 HDTV 방송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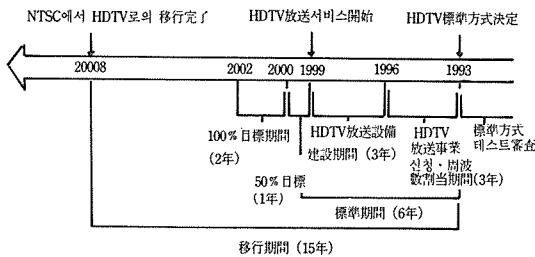
4月에 발표한 原案에서는 신청기간을 2年間으로 하였다. 또한 Thermal Cast方式의 적용에 관해서는 「HDTV와 NTSC 兩채널에서, 同一 시간대에서 동일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는 원칙해석을 완화, 선전, 局프로모션을 제외한 기본 프로그램의 구성이, 24시간의 방송틀내에서 동일하면, Thermal Cast로 인정하는 방

침을 표방하였다.

이 수정안은 4월 이후 방송업계로부터 제출된 諸규제의 완화요구를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FCC는 현행의 NTSC 방송을 '93년부터 2008년까지의 15年間 완전히 HDTV 방식으로 교환한다는 「15年 완전이행」의 Time Frame을 견지하였다. 방송개시 後 Thermal Cast 100%를 달성할 때까지의 기간을 3年間으로 한정하는 등 방송국측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내용이다.

FCC의 HDTV 導入計畵(修正後)



미국의 금년 영상기기 판매 전망

RCA, GE, Proscan의 3브랜드를 갖고 있는 TCE(Thomson Consumer Electronics)사는 예년, 羊期마다 시장예측을 발표하였다. 동사의 크레이튼 부사장의 시장예측은 「금년의 미국 칼라TV 판매는 사상 2위인 2,090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우선 칼라TV 시장에서는 대화면 기종의 신장이 현저하였고, 업계는 30億弗 규모로 성장하였다.

업계전체에서 31인치와 35인치 평면사각 및 Projection TV는 今年 전반기에 前年同期對比 43% 신장하였다. 후반기는 前年을 1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年間 대화면 High-end 시장은 '91年 실적을 적어도 40%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台數는 100萬台를 넘어서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후반기 대화면 TV의 시장 내역으로서는, 35" 콘솔형 143% 증가, 31" 테이블형 114% 증가, 35"테이블형 103% 증가, 31인치 콘솔형 94% 증가로 모두 대폭적인 신장이 기대된다.

또한 Projection TV의 신장도 신기종 투입의 사이클에서 前年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年間 42萬 5,000台 이상으로 예상된다.

또한 캠코더시장은 후반기가 주목된다. 시장의 안정성장은 빼 놓을 수 없는데 전분기에서 5%증가한 300萬台의 안정선으로 전망된다.

방식별에서는 '92年 전분기에 콤팩트형 판매대수가 6%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8mm가 여전히 시장을 리드하여 후반기에 64%증가가 기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VHS-C도 후반 123%增, 전분기에서도 71%증가로 급신장하고 신장률은 8mm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國의 通信市場, 비디오 會議 急成長

美國의 통신시장에서 今後 비디오 會議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드웨어의 매출은 '90年の 2億 5,000萬弗에서 '91년에는 20億~25億弗로 확대되고 통화요금의 매출도 7億弗에서 10배인 60億~70億弗로 성장이 예상된다.

통화요금의 급속한 가격하락이 비디오 會議의 수요를 상승시켰다. '84년에는 1시간에 통화요금이 1,000弗로 상승했으나, 현재로는 영상의 질에 의해 10~30弗로 하락하였다.

한편, 하드의 가격은 최대 8個所를 연결할 수 있고 화상은 컬러, 문서를 카메라를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精彩타입에서는 70萬~80萬弗로 하는데, 기술적으로 단순한 기종은 2萬~4萬弗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美國에서는 4,000台의 비디오 會議시스템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전세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현재에는 업체간의 호환성은 갖추어지지 않고 있지만 3~5년 이내에 표준화가 추진되고, '97년에는 美國에서 판매되는 시스템의 70%가 호환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美Cray와 Motorola, ASIC 개발 제휴

Cray Research(CRI)와 Motorola 양사는 ASIC의 제품개발을 제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CRI는 自社の 제조능력과 Chip기술력을 높일 목적으로, Motorola의 반도체부분과 5만 Gate 금속배선 4층 바이폴라·어레이의 즉시 납품 및 0.5미크론의 Bicmos 기술에 대한 조기Access를 포함한 승인을 하였다. 한편, Motorola에 있어서 同社의 CRI에 의한 ASIC의 조달을 안정화시켜, 컴퓨터 업계의 동향을 빨리 숙지할 수 있다고 한다.

CRI會長은 이번 제휴발표에 즈음하여, 「Motorola의 프로세스 및 제조기술과, 日本 會社の 회로 패키지 및 시스템 설계에서 기술혁신을 연결시킴으로써, Cray는 슈퍼 컴퓨터시장에서 세계의 업계기준을 변경시켰다」고 표명하고 제휴가 Motorola와의 長年の 友好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표명하였다.

고성능 CPU, 미국 3사 공동개발

美컴퓨터 업계가 최근 표명한 바에 의하면 IBM, Apple, Motorola의 3사는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新型컴퓨터用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CPU)의 試작품을 계획보다도 앞당겨 완성시킬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사는 텍사스주 오스틴연구소에서 신형CPU 「Power-PC」 시리즈를 개발했다.

「Power-PC」는 Apple의 新型 매킨토시로 사용되는데, IBM도 워크스테이션과 Servo로의 이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완성하는 試작품은 「Power-PL」 시

리즈의 최초의 제품인 「Model 601」로 3사는 작년 10월에 공동으로 CPU를 개발했을 때, 試작품의 완성은 '93년 봄 이후가 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 드래곤 社의 음성인식 부품 채용

퍼스컴用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의 美드래곤 테크놀로지는 최근 同社の 음성인식기술이 마이크로 소프트의 「Windows Sound System」에 채용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드래곤 테크놀로지는 '82년에 설립된 음성인식기술분야의 최첨단 기업으로 사원수는 90名이다.

마이크로 소프트가 채용한 것은 드래곤이 개발한 음성인식 콤포넌트 「보이스·파이롯트」이다. 보이스 파이롯트는 소프트웨어와 오디오 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 파이롯트를 탑재하면 퍼스컴의 복잡한 Key조작을 음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Graphic User Interface (GUI)보다 빠르며, 알기 쉬운 Man Machine Interface Voice 파이롯트에서는 「윈도우즈 3.1」의 명령을 음성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최대 64개의 명령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MCI, 세계 규모의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구축 계획

美國의 第2 국내장거리와 국제전화사업會社인 MCL Communication가 세계규모의 Intelligent Wetwork網 구축을 착수하였다. 지난달 캐나다측과 미국 캐나다간의 同서비스 실시에 제휴하여 Intelligent망을 세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MCI는 ATT의 국내전화사업 독점에 대항하여 '86년에 설립되어, 저렴한 요금을 전략으로 업적을 신장시켜 왔다. '83년 캐나다間에서 전화서비스를 개시, 이것을 계기로 국제전화

시장에 참가했다.

전화서비스 의존에서 업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同社は 최근 캐나다의 스텐다 캐나다인 네트워크 매니지먼트社와 合意, MCI가 설계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쌍방의 네트워크를 통합하게 되었다. 스텐다社は 캐나다의 주요전화회사 9社가 참여한 통신서비스 會社이다. 합의에 기인하여 스텐다社は 1億, 5,000万弗에 계약한 MCI의 Intelligent Network Platform을 他社에 라이선스 공여, 또한 MCI와 스텐다社は 협력하여 장래의 Intelligent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MCI는 또한 라이선스 공여와 기타 전화회사와의 합작사업과 제휴를 추진, 세계 10個所에서 인텔리젼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한 Node(교환기거점)을 확립할 계획이다.

독일의 퍼스컴시장 동향

독일의 퍼스컴 시장은 한자리의 저성장을 계속한 後, '95년에 피크를 맞고 그後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보고가 독일 IDC로부터 발표되었다.

보고는今年の 독일퍼스컴의 시장의 신장을 7%(작년은 19%)로 예측, 매출은 1%의 마이너스(同1%의 플러스)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의 퍼스컴 판매대수는 23万台로 歐洲에서는 여전히 정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하여 '95년에는 280万台에서 300万台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퍼스컴의 급속한 가격하락은 계속되고 있는데, 상반기의 가격하락율은 40%에 달하였다. 기술혁신이 없기 때문에, 新舊 혼합된 가격경쟁은 계속되어 他社로부터의 OEM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퍼스컴(탁상형)시장은 年 62億마르크, 작년은 IBM이 16.3%의 시장 점유율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였다. Siemens · Nixdorf가

8.9%로 그 뒤를, Apple이 7.1%로 바짝 뒤쫓고 있다.

포터블機※는 시장 리더인 도시바가 21.5%의 점유율을 가지고, 11.5%인 IBM이 2위, 10.9%인 콤팩이 3位の 자리를 지켰다.

독일의 사진기시장 동향

독일의 今年 사진기·비디오 무비산업시장은, 旧東獨 수요가 안정되어, 평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中에서도 캠퍼코더의 판매가 오름세를 보여 작년의 102万台를 초월하여 140万台로 예측된다. 이것은 독일 寫眞産業連盟(PIV)이 쾰른에서 개최한 영상·음향전시회 「Photokina '92」에서 확실히 표명되었다. 독일 시장 전체에서는 작년과 같은 두자리의 신장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3~5%의 신장률이 예상된다. 카메라의 판매총수는 약 520万台로 추정된다. 일반소비자의 취향이 반영되어 Auto Focus와 Zoom기능의 전자동 35mm 카메라가 인기를 불러 모으고 있다. 1안 리플렉스는 46万台 전후에 머물렀으나, Auto Focus SLR 기능부착이 계속好評을 받고 있다.

필름의 팔림세도 好調로今年の 판매총수는 前年對比 6%증인 1億 6,000万개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新型카메라, Photo CD와 같은 필름 처리기술, 광범위한 부속품 등으로 업계는 자신을 갖고 있는데, 가정용전자기기 시장이 好況을 보이고 있다고 同연맹은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 오디오 시대의 개막

일본의 松下電器는 최근 DCC Digital Compact Cassette) 테크와 DCC 공(空) 테이프를 발매했다. 벌써 Philips도 제품출하를 시작하였고 Sony도 11월에 MD(Mini Disk) 플레이어의 발매를 계획 새로운 디지털 Audio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松下電器는 Audio 전문점 일부 Hi-Fi Audio의 판매장을 가진 양판점 등에서 전시를 하는 시작하였다. 同社에서는 출하대수, 상품 전시를 하는 판매店數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당초는 일시적인 상품부족을 나타낼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단지 同社 및 Philips에서는 年内에 상품공급도 윤택해져, 취급점이 500에서 800군데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적극적인 판매점에서는 벌써 몇대의 예약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당면 판매목표를 100대로 계획하고 있는 전문점도 있다.

일본NEC, 지구환경보전 신조직 설립

일본 NEC는 최근 그룹의 소사업영역에서의 지구환경 보전활동을 심의·결정하는 최고기관으로써 「NEC Echo Management 委員會」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同社에서는 현재까지 환경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관리활동을 추진했으나,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책임의 증대와 개별문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部會와 地區 Echo Management 위원회에서 구성하는 新체제이다.

同社는 1970년에 공해방지환경관리부(現환경관리부)를 설립, '71년에는 환경보존활동을 심의하는 조직으로써 환경관리중앙위원회를 설치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의 전폐활동과 반도체사업Group 등의 산업폐기물 반감화 운동 등을 전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21세기를 向하여 환경문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어 종전의 환경중앙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조직으로 한 것이다.

NEC Echo Management 위원회는 省에너지 대책부회, 물류·제품회수부회, 오존층 파괴물질 전폐부회, 폐기물삭감·재자원화 部會의 4部會 및 각사업부의 Echo Management 위원으로 구성되는 地區 Echo Management 위원

회로 구성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반도체 수요 전망

日本을 제외한 Asia·태평양지역 반도체 칩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 케스트의 예측에 의하면 同지역의 今年 수요는 작년을 22% 상회하여 93億弗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세계수요의 신장예측 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수요의 확대는 今後에도 멈추지 않고, 내년은 110億弗, '96년에는 170億弗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國에 비교하면, 시장규모는 절반에 지나지 않지만, '90年代 후반에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歐洲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반도체칩 수요는 아직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세계의 퍼스컴工場으로 둔갑한 듯한 느낌이 있는 대만의 수입량은 크므로, 반도체가 炭化水素위 뒤를 잇는 수입품목으로까지 성장하고 있다.

대만, 일본방식의 HDTV 도입 내정

台灣의 경제부 고품위TV 공업발전추진위원회는 최근 會議에서 台灣이 채용할 고품위TV 시스템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비교한 결과, 가장 선진적이고 양립성이 높은 日本의 시스템으로 하기로 내정한 것으로 한 소식통이 전했다.

단 프랑스의 Thomson과 네덜란드의 Philips 兩社가 공동개발한 歐洲시스템의 채용을 최종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 내년 5월에 工業局은 프랑스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歐洲시스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채용할 시스템을 결정할 계획이다.